

방사선 단독요법시 3예(60%), 항암화학 단독 요법시 8예(67%), 그리고 병합요법시 2예(67%)의 완전 반응을 보였다. 재발 부위는 국소 임파선이 3예, 뇌막 1예였고, 원발 장소별로 볼때 편도 원발성이 3예로 가장 많았다.

7

A Study of Subclinical Extension of Basal Cell Carcinoma by Mohs Micrographic Surgery

Chung-Hwan Baek, M.D.,
Gwang-Yeol Job, M.D.,*
Hee-Chang Ahn, M.D.,**
Sook-Hee Ho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Dermatology*, Plastic Surgery**, Path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We studied 21 cases of basal cell carcinomas (BCCs, 10 primary, 11 recurrent) utilizing Mohs micrographic surgery to determine the depth of excision as well as the lateral margins of BCC. Preoperatively, the clinically normal skin surrounding tumor was marked in 2-mm increments parallel to tumor margin. For checking surgical margins, we preferred the method of peripheral vertical and horizontal frozen sections to the Mohs method of oblique peripheral sections.

Sixty percent of tumors in primary BCCs in our series had a 2-mm maximal margin and 81.8% of recurrent BCC were eradicated with 4-mm or more lateral margin. All the recurrent basall cell carcinoma (9 cases) measuring greater than 15 mm required more than 4-mm margin for the total removal. More than 90% of BCC on the nose in our series required the removal of periosteum/perichondrium or the excision of whole layer.

8

구강 및 구인두암의 수술에 있어서 하악골 부분절제술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은창 · 홍원표

하악골에 근접한 구강 및 구인두암의 치료에 있어서 하악골 침습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악골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분절절제술, 부분절제술, 혹은 하악을 보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절절제술은 실제로 하악에 침습이 없다면 하악골의 불필요한 과잉절제가 될뿐아니라 이의 재건이 필수적이며 하악을 절제치 않는 경우 절제면이 종양과 가깝게 되어 암이 잔존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하악의 일부를 보존하면서 종양의 침습이 의심되는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구강암 3례와 구인두암 10례에서 하악골의 변연 및 시상면 부분절제(marginal and sagittal partial mandibulectomy) 혹은 시상면 부분절제를 원발병소의 절제와 함께 시행하였기에 그 결과 및 술식을 검토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 1) 하악골의 부분절제술은 불필요한 분절절제술을 줄일 수 있다.
- 2) 원발병소를 하악골에 부착된 채로 절제하므로 절제시 종양변연을 조직의 긴장없이 절제할 수 있다.
- 3) 술 후 하악의 재건이 필요 없거나 하악골절개면의 봉합만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4) 술 후 얼굴모습에 장애가 없다.

9

두경부 악성종양 절제후 유리조직이식술을 이용한 재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